

# “해인사 비로자나불은 9세기작”

지난 7월 4일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됐음을 알리는 명문이 공개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을 주제로 한 ‘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가 12월 10일 해인사(주지현음)에서 열렸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미술사학과), 김리나 홍익대 교수(예술학과), 김상현 동국대 교수(사학과), 박상진 경북대 교수(임상공학과), 남풍현 前 고문서학회장 등 학술강연회에 참석한 각 분야전문가들은 해인사비로자나불이 9세기 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미술사·과학적 분석 결과 전문가들 의견 일치

### ‘대각간=위홍說’ 부정적 ... 고증 거친 개금 과제로

#### ● 풍만한 신체, 석굴암 본존불과 닮아

이번 학술강연회 관심의 초점은 법보전 비로자나불이 과연 목서에 나타난 대로 9세기에 제작된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불상 내부에서 883년작임을 알리는 명문이 발견됐음에도, 학계 일각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로자나불을 미술사적으로 접근한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불의 풍만한 어깨·팔·얼굴이 8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난 9세기에 유행한 양식으로 석굴암 본존상(751~753년)이나 남산 약수곡 약사여래좌상 등과 닮아있고 ▲옷 주름이 두툼해 층단을 이루며, 큰 주름 사이에 들어간 부분이 불룩하게 나타나는 반파시(翻波式) 양식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8세기 말~9세기 초 작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교수는 그간 비로자나불을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할 오류에 대해 ▲통일신라시대까지는 목조불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 ▲육체에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있어 후대 것으로 보였던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리나 홍익대 교수는 “고려나 조선시대의 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드럽게 늘어서 사실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이 경주, 경삼북도 지역의 8세기 말에서 9세기 상들과 친연성(親緣性)을 보인다”며 강우방 교수 의견을 지지했다.

강우방 교수의 주장은 박상진 경북대 교수에 의해 또 한번 강력하게 지지됐다. 박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불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에서 채취한 표본을 서울대에 AMS(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 분석을 의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의거 박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불이 AD740년 전후부터 950년 전후,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이 AD950년부터 109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 (신뢰한계 95.34%)

박원규 충북대 교수(산림과학부)도 “탄소연대의 측정오차와 변동오차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두 불상은 9~10세기 것이 분명하다”며 “연륜연대 측정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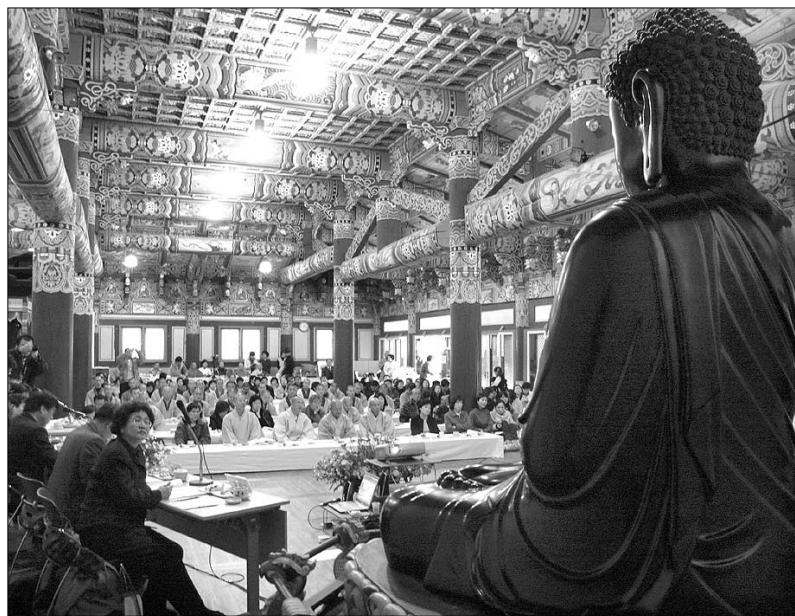
목서명의 문체도 제작연대가 9세기라는 설을 뒷받침했다. 남풍현 前 고문서협 회장 “(‘좌측)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梁金着成(우측)寶願大角于主體身賜’右座妃主體身○○’라는 명문을 한문어순으로 해석하면 뜻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한자어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해놓은 초기 이두문 형태이기 때문이다.

초기 이두문으로서 한문적인 표현을 담은 동해시 삼화사철불(860년대 추정)의 것과 유사하다”며 “9세기 들어서 이런 문체가 널리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우방 교수는 법보전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선후에 대해 AMS분석 결과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강 교수는 “미술사가는 양식으로 연대를 추정해야 한다”며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에 반파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부처리가 깔끔한 점, 그리고 883년 이전 나라가 기울어 조각 솜씨가 하향세에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후에 대적광전 비로자나불과 같은 불상이 조성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이 먼저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 목서의 ‘대각간’은 위홍인가?

해인사 비로자나불 내부에서 명문이 공개됐을 당시 “대각간은 약간 위홍이며,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은 진성여왕이 각각 위홍을 위해 조성했다”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은 위홍과 진성여왕에 해당한다”는 등의 설이 제기됐다. 심지어는 이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염원



법보전 비로자나불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12월 10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학술강연회에 비로자나부처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하여 조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위홍의 관등이 875년에 이찬이었고, 죽은 해인 888년(진성여왕 2년)에는 각간이었다”며 “그가 883년에 대각간이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883년은 이들이 살아있던 때여서 통상 사후에 발원의 의미로 불상을 조성하는 대개의 예에 비추어 두 비로자나불과 위홍·진성여왕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조범환 서강대 박물관 연구수도 대각간이 먼저 오고 ‘해’가 다음에 온 점을 주목하며 “연연히 왕이었던 진성여왕이 대각간보다 뒤에 올 리는 없다”며 “위홍과 진성여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 불상 연대추정에 AMS분석 첫 적용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해 두 비로자나불의 조성연대를 둘러싼 잡음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9세기 작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상의 연대 추정에 AMS분석을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명문의 발견부터 연구결과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다. 이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김상현 교수는 “조사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복장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명문과 불상만 갖고 연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며 “복장과 분리해서 연구하다 보면 연구 성과가 쉽게 뒤집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리나 교수도 “법보전 비로자나불 고찰에는 표현의 양식적인 특징, 상 내부에 있는 기록의 내용해석은 물론 함께 들어 있던 복장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런 재료를 통해 공통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점과 해결점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나온 500여점의 유물은 밀봉해서 보관 중”이라며 “추후 복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에서 나온 복장유물에 대한 연구까지 이뤄진다면 비로자나불에 대한 훨씬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로자나불의 계주와 나발의 처리와 개금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계주와 나발은 통일신라시대 것이 아닌 고려와 조선 불상의 특징으로, 비로자나불이 9세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양식이 때문이다. 또 개금은 불상의 인상을 상당히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엄밀한 고증을 거쳐 개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해인사측은 현재 법보전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개금을 1월 중순경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그 전까지는 CT촬영이나 X레이 촬영 등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합천 해인사/글·사진·박익순 기자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3>

### 유비쿼터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미야 사고는 약 3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이 부모를 찾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가족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수 억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수천 원에 불과하고, 단추만 누르면 세상 어디에 있는 친구와도 통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신의 지구 사진을 즉각 받아 볼 수 있는 오늘날에도 미야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과학 기술과 삶의 문제와의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다.

지난 30년간의 컴퓨터나 통신 기술은 기계 중심적인 기술의 전개였다. 컴퓨터가 있으면 인간이 그 컴퓨터를 중

서 컴퓨터 환경이 스스로 가장 적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GPS(지구 위치 추적 시스템)를 장착한 자동차, RFID(무선 인식 시스템) 센서를 장착한 홈 네트워크, 그리고 환경 센서를 장착한 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GPS의 가장 큰 목적은 속도위반 방지다. 자동차의 속도와 주위의 속도 단속기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가 운전자가 아닌면 자동 운전 장치에게 속도의 변화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 물건 등에 무선 기능을 가진 먼지민한 칩을 장착해 두면, 무선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는 물건과 사람의 정보를 탐침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 쉬워진다. 따라서 미야 발생은 처음부터 가능

## 온세상 구석구석 컴퓨터 시스템 구축 인연의 그물에 얽힌 화염경 세계 연상

심으로 모여드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1950년 대 IBM이 컴퓨터를 소개하고 나서, 당시 컴퓨터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컴퓨터가 3대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컴퓨터의 용도를 과학적 계산에 국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IBM PC가 개발되고 나서, 개인이 PC를 여러 대씩 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PC 시장은 폭발했고, 전 세계 전자 시장,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 많은 가정에서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유비쿼터스’는 라틴어로 ‘어디에서나 산재하고 있는’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주위 모든 것에 계산(혹은 컴퓨팅)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산재한다는 개념이다. 환경은 인지하고 이 환경변화에 따라

성이 차단되는 것이다. 자동차에 부착된 RFID는 자동차 차폐기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가 주차장에 도착 전에, 가장 가까운 주차 공간을 컴퓨터로 가르쳐 줄 것이다. 공원의 나무에 장착된 센서는 환경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세계는 화염경의 세계를 연상케 한다. 이 세상 만물이 인연의 그물에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 인연의 그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망할해(帝網網海)’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유비쿼터스의 세계에서는 세상 어느 구석에서의 일도, 우리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술이 좋은 부처님 인연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빌어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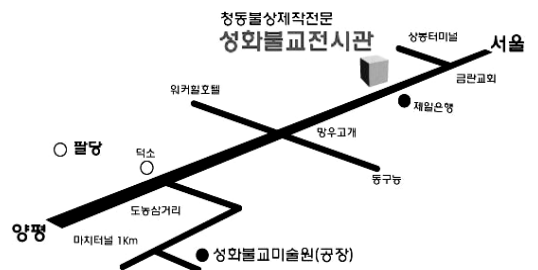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특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전사전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장빌딩 1층

###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불기 2550(2006년) 병술년

## 신년 축하광고와 함께 합니다

범 종단 정론지 현대불교신문!

불기 2550(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희망의 원을 함께하고자 신년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동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상 : 불교 각 종단 및 사찰, 단체 등
- 준비 : 축하말씀, 명단, 관련 이미지 등
- 원고마감 :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전화 02)2004-8214 ~ 6 / 팩스 02)737-0697  
이메일 jabi1522@empal.com

### ● 각 지역 문의 및 접수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전남 일원	이준업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충북지사	대전 / 충북	해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병수	052)272-0909 / 011-862-5282